

씨앤에스테크놀로지, 통행료자동징수 시스템용 칩 개발

씨앤에스테크놀로지(대표 서승모 www.cnstech.co.kr)는 교통정보와 연동이 가능한 주파수(RF) 방식의 통행료자동징수(ETC:Electronic Toll Collection) 시스템용 칩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칩 솔루션은 양방향 통신이 가능해 향후 다양한 부가 장치나 부가 기능과 연동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씨앤에스는 이 칩 솔루션으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ETC용 단말기 시장을 공략하고 향후 내비게이션, 현대이동방송과 통합된 단말기 시장 등 차량 전장용 시장에도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씨앤에스는 국내 ETC용 솔루션이 주파수(RF) 방식과 적외선(IR) 방식이 혼용되고 있지만 RF 방식이 IR 방식보다 다른 장치와 통합이 쉽고 차량 전원을 이용하는 등 편리하기 때문에 점차 RF 방식이 대세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승모 씨앤에스 사장은 "ETC를 근간으로 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와 단말기들이 선보이면서 관련 산업과 시장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며 "ETC 단말기 업체들을 대상으로 씨앤에스의 칩 솔루션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 241개 톨게이트에 ETC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하이패스'로 지칭되고 있는 ETC 단말기는 2009년 약 300만대에 이를 전망이다.

매직아이, 533MHz급 고성능 SoC '폴룩스' 양산

매직아이 (대표 손해운 www.mesdigital.com)가 533MHz CPU와 3D 그래픽을 지원하는 칩 '폴룩스(Pollux)' 양산에 돌입했다. 90나노미터(nm) 공정으로 개발된 폴룩스는 고성능·고해상도 화면이 요구되는 카내비게이션·고해상도 전자책·듀얼 판매시점관리(POS) 시스템 등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내장된 3D 그래픽 엔진은 생동감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듀얼 디스플레이 및 고해상도(1280x1024) 디스플레이를 지원한다. 폴룩스는 소형 메모리카드인 SD카드와 MMC카드, NTSC/PAL 인코더, USB2.0, 다중셀(MLC) 구조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박막트랜지스터(TFT), STN LCD 등을 모두 지원한다.

폴룩스를 전자제품에 적용하려는 기업들은 이달 말부터 매직아이 대리점과 아이지시스템에서 공식 개발품을 예약 구매할 수 있다. 매직아이는 50만개를 공급하기로 계약, 폴룩스를 채택한 첫 번째 전자제품이 1분기에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손해운 매직아이 사장은 "폴룩스를 고속 CPU와 3D그래픽을 하나의 칩으로 만든 제품으로는 획기적인 가격에 공급할 예정이다"라며 "이 칩을 장착할 내비게이션과 전자책 등 소형 디지털 제품도 가격이 낮아져 저변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에스하이텍, 암호화 기능 탑재한 RFID칩 개발

에스하이텍(대표 김승주 www.yeshightech.com)은 미술품이나

보석 등 고가제품의 진위여부를 확인, 관리할 수 있는 특수용 전 자태고(RFID) 칩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13.56MHz주파수 대역의 태그용 칩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칩 회로구조(로직) 알고리즘에 암호 난수를 적용, 태그 리더에서 이 난수를 만족하는 태그만을 진품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술품·보석·골동품 등은 물론이고 학적부나 성적표 등 진위 관리가 중요한 분야에서 활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주 사장은 "13.56MHz 태그칩은 이미 중국에서도 개발될만큼 범용화되고 있지만 이 제품은 기존제품과 달리 위변조 방지가 가능해 진위 파악이 중요한 분야의 특화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 팜리스업체 토마토LSI에서 분사한 에스하이텍은 임핀지·필립스·TI 등이 장악해온 RFID 칩의 국산화에 나서 지난 6월 국내 기업 최초로 900MHz 제품 개발에 성공해 주목받고 있다.

텔레칩스, 현대차 신형모델에 반도체 공급

텔레칩스(대표 서민호 www.telechips.com)는 최근 현대자동차 신형 모델인 '소나타 트랜스폼'에 내장되는 카오디오에 오디오프로세서(DMP)를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MP3플레이어와 카·홈 오디오, 뮤직폰 등 다양한 디지털기기에 탑재돼 MP3와 CD 등 오디오 기능을 수행하는 오디오프로세서를 자동차 전장업체인 현대오토넷 카오디오에 탑재, 소나타 트랜스폼에 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텔레칩스는 현대자동차에 앞서 2007년 9월부터 SM5와 SM7 등 르노삼성자동차가 최근 출시한 모델 2종에 탑재되는 카오디오에도 오디오프로세서를 납품하고 있다. 또한 캔우드와 JVC, 파나소닉 등 해외 자동차 전장업체들에도 오디오프로세서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MP3플레이어 등에 강세를 보이던 이어 카·홈 오디오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 밖에 텔레칩스는 네덜란드 필립스와 일본 소니 등 해외 유수 기업들이 생산하는 MP3플레이어와 PMP 모델에도 오디오프로세서를 공급하는 등 오디오프로세서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다.

이 회사 관계자는 "2008년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출시하는 신형 모델에 탑재되는 카오디오 50% 가량에 오디오프로세서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델릭스, 미국 스펀션에 반도체 전격 공급

피델릭스(대표 안승한 www.fidelix.co.kr)는 노어 플래시 분야 전 세계 1위 기업인 미국 스펀션에 반도체를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노어플래시와 멀티미디어프로세서 등 휴대폰에 들어가는 다른 반도체 안에 내장돼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초소형 버퍼(buffer) 메모리인 슈도S램을 스펀션 측에 납품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펀션이 피델릭스로부터 받은 슈도S램을 노어플래시 안에 내장해 중국과 대만 등지에 있는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펀션은 일본 후지쯔와 미국 AMD가 합작으로 2003년 설립했으며, 현재 전 세계 노어플래시 분야 1위 기업이다. 이를 통해 피델릭스는 이번 스펀션 공급을 통해 국내 휴대폰 멀티미디어프로세서 고객사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70%에 이르렀던 내수시장 매출 비중을 해외로 본격 확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사 장석현 이사는 "내수시장 중심으로 전개하던 사업을 해외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외 공급처 확대와 함께, 기존 슈도S램과 저전력SD램 등에 이어 2008년부터 차세대 메모리인 DDR 등으로 제품군 역시 다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엘디티, 6채널 PWM LED 구동 IC 개발

디스플레이 구동 IC 솔루션을 제공하는 팹리스 회사인 엘디티(대표 김철호 www.ldt.co.kr)는 고품질 LED 전광판용 16채널 출력의 PWM(PulseWidth Modulation) LED구동 IC(제품명 LD1070·사진)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기존의 LED 구동 IC와는 달리 PWM 기능이 추가돼 풀컬러(Full Color) LED 전광판 구현이 쉽도록 설계됐다. 특히 전류 출력 특성이 5mA 정도의 낮은 출력 전류에서도 16개의 출력 채널간에 최대 플러스마이너스(+/-) 3% 이하의 차이를 유지해 매우 높은 정확도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해외 경쟁사 제품에 비해 약 30% 이상 크기가 작아 가격 경쟁력에서도 크게 앞선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엘디티는 그 동안 다양한 LED 구동 IC 제품들을 생산해 국내외에 공급해 왔으며, 이번에 16채널 PWM LED 구동 IC를 추가로 출시함에 따라 제품 라인업을 더욱 확대하게 됐다.

코아로직, 저가 휴대폰용 멀티미디어칩 출시

코아로직(대표 황기수 www.corelogic.co.kr)은 저가 휴대폰이 확대되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저가 휴대폰용 멀티미디어칩 '이지스(AEGIS)'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코아로직이 이번에 이지스를 출시하는 것은 저가 휴대폰용 칩으로 지금까지 고가 휴대폰시장에 적합한 고급형 멀티미디어칩에 주력했던 사업체질을 개선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저가 휴대폰이 강세인 신형시장과 급부상하고 있는 뮤직폰 시장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이지스는 MP3플레이어에 필적하는 프리미엄 사운드와 음향 효과를 제공한다. 시장에서 검증된 코아로직의 MP3 디코딩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크기가 작아 얇은 뮤직폰에 최적화됐다. 이 칩은 코아로직의 뮤직폰 전용 칩인 '헤라 골드(HERA GOLD)'를 기반으로 해 소프트웨어 호환성을 최대화했고, USB2.0 단자를 지원해 외부 디지털 기기와 연결도 쉽다. 황기수 코아로직 사장은 "코아로직은 저가

휴대폰 시장의 흐름에 발맞춰 저가화 기술을 적용해 신속한 시장 진입을 추진해 왔다"며 "이지스는 최근 1,000만개 출하를 돌파한 뮤직폰 전용 멀티미디어칩 '골드(GOLD)'보다 더 큰 시장성을 가지고 있어 차기 코아로직의 캐시카우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브로드큐, 모바일 DVB-T용 디모듈레이터 출시

브로드큐(대표 최선호 www.broad-q.com)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 모바일 DVB-T용 디모듈레이터 칩세트인 'BQ1001'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브로드큐는 토마토엘에스아이의 설립자였던 최선호 사장이 설립한 팹리스 반도체 기업이다. 최 사장의 컴백 첫작품인 BQ1001은 자체 알고리즘인 '엠브로큐(MbroQ)'를 적용해 시속 150km 이상으로 이동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DVB-T 표준 기반 방송을 수신할 수 있고 크기와 소비전력도 작은 것이 장점이다. 원칩과 멀티칩패키지(MCP)의 두 형태로 판매될 예정이다. 최선호 사장은 "DVB-T를 지원하는 모바일 단말기 개발 업체들은 그동안 모바일 DVB-T용 칩세트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 제품이 관련 단말기 업체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리콘마이터스, 외자 600만 달러 유치

전력관리반도체(PMIC) 전문 업체 실리콘마이터스(대표 허영 www.siliconmitus.com)는 미국의 월든인터내셔널(Walden International)로부터 600만달러(약 54억5000만원)를 투자받았다고 밝혔다. 월든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미국·중국·인도 등지에서 투자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회사는 16억달러(약 1조 5000억원) 규모의 벤처자금을 운용하며 정보통신·디지털가전·소프트웨어·반도체 분야에 주로 투자해 왔다. 그 동안 비섬·리디스테크놀로지·시나닷컴·S3·사이프레스·SMC 등 50개 이상의 반도체 기업에 투자해 나스닥에 상장시켰다. 허영 사장은 "이번 투자유치는 전력관리반도체 분야에서 실리콘마이터스의 개발력과 국제 경쟁력을 세계가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 전력관리칩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실리콘마이터스는 앞으로 PMIC 뿐 아니라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와 배터리관리칩 분야 등으로 제품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자료제공]

- [1] 전자신문 www.etnews.co.kr
- [2] 디지털타임스 www.dt.co.kr
- [3] 머니투데이 www.moneytoday.co.kr